

『증보소비맹자』의 조선 전래와 『맹자비평』의 편찬*

鄭雨峰**

- | | |
|------------------------------|---------------------|
| I. 들어가며 | III. 『孟子批評』의 編者와 구성 |
| II. 『蘇批孟子』와 『增補蘇批孟子』의 전래와 수용 | IV. 나오며 |

● 국문초록

그동안 『맹자』에 관한 연구는 경학, 사상사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이 논문은 그동안의 통상적인 관점과 다른 방향에서 맹자 텍스트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선학자가 편찬한 유일의 孟子 評點書인 『孟子批評』을 새롭게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맹자비평』은 蘇洵이 편찬했다고 알려진 『蘇批孟子』를 청대에 이르러 趙大浣이 증보를 한 『增補蘇批孟子』를 수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맹자비평』은 『증보소비맹자』에 수록된 소순과 조대완의 評批를 수용하는 한편, 19세기 전반기 산문가로 유명하였던 俞莘煥의 평비를 추가하여 尹明善에 의해 편찬되었다. 또한 초학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口訣吐를 붙였으며, 구두점을 표시하였고, 필요한 경우 한글음을 달았고, 성조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증보소비맹자』에도 구두점과 성조 표시가 있지만, 『맹자비평』에는 이들 이외에 口訣吐와 한글음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증보소비맹자』를 조선 지식인이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용한 사례라고 하겠다.

주제어 : 孟子批評, 增補蘇批孟子, 俞莘煥, 尹明善, 評點, 評批

*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I. 들어가며

그동안 『맹자』에 관한 연구는 경학 방면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사상적, 학술사적 관점에서 『맹자』가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논문은 그동안의 통상적인 관점과 다른 방향에서 『맹자』 텍스트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선학자가 편찬한 유일의孟子評點書인 『孟子批評』을 새롭게 발굴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일찍이 朱熹는 “『맹자』를 읽으면 그 의리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熟讀한다면 글을 쓰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讀孟子, 非惟看它義理, 熟讀之, 便曉作文之法]”¹⁾고 말한 바 있듯이, 사상적 의리를 밝히는 것과 문장 구성과 표현을 구명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상과 경학 방면에 치중되었던 『맹자』 연구와 함께 문학 방면에서 『맹자』 텍스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유의하여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尹明善(1851~?)의 『맹자비평』을 중심으로 명청대에 초학자를 위한 문장학습서로서 널리 읽혔던 『증보소비맹자』가 조선에 전래되어 수용된 양상을 추적하고, 그러한 수용의 대표적인 성과의 하나로 『孟子批評』의 편자와 구성,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맹자비평』은 『增補蘇批孟子』에 수록된 蘇洵과 趙大浣의 評批에다가 19세기 전반기 산문가로 유명하였던 俞華煥(1801~1859)의 평비를 한 곳에 모아 놓았기 때문에 이들 세 사람의 평비를 한꺼번에 살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맹자비평』은 趙大浣에 의해 편찬된 『增補蘇批孟子』가 조선에 전래되어 수용된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맹자비평』은 유신환의 평비를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학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口訣吐를 붙였으며, 구두점을 표시하였고, 필요한 경우 한글음을 달았고, 성조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증보소비맹자』에도 구두점과 성조 표시가 있지만, 『맹자비평』에는 이들 이외에 口訣吐와 한글음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맹자비평』은 『증보소비맹자』를 조선 지식인이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용하여 발전시킨 성과라고 하겠다.²⁾

1) 朱熹, 『朱子語類』 권19.

2) 참고로 서울대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청대 목판본 『증보소비맹자』(1873년 兩儀堂 간행)에도 구결현토가 달려 있다. 구결토의 존재를 통해 청대에 간행된 『증보소비맹자』를 조선의 독자가 열람했음

조선후기에 『맹자』를 문장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저술은 많지 않다. 이 점은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비슷하다.³⁾ 사상서로서 『맹자』를 수용한 예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동아시아의 공통된 현상이다. 그렇지만 조선후기에 들어와 문장학의 관점에서 『맹자』에 관심을 갖고 분석한 저술이 일부 출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魏伯珪의 『孟子筭義』, 李象秀의 『孟子筆程』 등을 들 수 있다.⁴⁾ 시와 산문, 소설, 희곡 등처럼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한 평점서가 조선후기에 다양하게 출현하는 가운데, 경전, 역사서, 제자백가서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評點 批評이 확대되어 나갔다. 『맹자비평』은 조선후기 평점 비평이 集의 범위를 넘어 經史子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기』의 貨殖列傳에 대한 주석 및 비평을 가한 저술들이 출현하는 것도 이와 연관된다.⁵⁾

II. 『蘇批孟子』와 『增補蘇批孟子』의 전래와 수용

『孟子』 텍스트를 評點 방식으로 비평한 책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明代부터이다. 李卓吾의 『四書評』 중에 『맹자』의 문장 기교에 대한 평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蘇洵의 저술로 가탁된 『蘇批孟子』, 戴君恩이 지은 『繪孟』, 陳深의 『孟子評點』 등이 출현하였다.⁶⁾ 그 중에서도 『소비맹자』는 『蘇評孟子』 또는 『蘇老泉批點孟子』으

을 알 수 있다.

- 3) 청대의 맹자학 저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최근 성과를 살펴보면, 문장학의 측면에서 『맹자』를 분석한 평점 방식의 저술은 20여 종에 지나지 않는다. 劉瑾輝, 『清代孟子學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李暢然, 『清代孟子學史大綱』, 北京大學出版社, 2011.
- 4) 위백규의 『맹자차의』, 이상수의 『맹자필정』에 대한 분석으로는 다음 성과를 참조. 김성중, 「존재 위백규의 맹자차의 연구」, 신진문철 간행위원회 편, 『신진문철』, 월인, 2002; 유민정, 「위백규의 수사학적 경전 해석: 맹자차의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2018; 유민정, 「한중일의 수사학적 경전 해석」,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9; 신재식, 「어당 이상수의 맹자 문법」, 『동양한문학연구』 55, 동양한문학회, 2020.
- 5) 이에 대해서는 안대회, 「사기 화식열전 주석서와 그 수사학적 해석」, 『대동문화연구』 11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1을 참조.
- 6) 명청대 『소비맹자』의 판본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殷六六, 『清代孟子評本研究』, 陝西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21.

로도 불리는데, 맹자 평점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책이다. 이 책은 평점의 방식 뿐만 아니라 『맹자』의 구성 방식에 대한 비평 등에 이르기까지 이후 맹자 평점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맹자』는 청대에 들어와 여러 차례 간행되고 증보되었으며, 조선과 일본에도 전래될 만큼 그 영향력이 동아시아 삼국에 미쳤다. 청대에 들어와 『맹자』 평점서는 20여 종 가까이 출현하였다. 물론 이 숫자는 맹자의 학술과 사상, 주해 등을 다룬 서적에 비하면 매우 적은 분량이다. 汪有光의 『標孟』, 趙承謨의 『孟子文評』, 牛運震의 『孟子論文』, 康濬의 『孟子文說』 등이 대표적인 맹자 평점서인데, 그 중에서도 趙大浣이 증보한 『증보소비맹자』가 널리 읽혔다.

『소비맹자』는 蘇洵의 편찬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蘇洵이 지은 것은 아니며 명대의 출판업자들이 이 책을 출판하면서 蘇洵의 이름으로 僞託한 것이다. 蘇洵은 일찍이 「上歐陽內翰第一書」에서 孟子의 문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소순이 『소비맹자』를 편찬한 것은 아니다. 評點 부호의 방식이 宋代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蘇洵의 死後에 활동했던 洪邁의 평어가 수록된 점을 근거로 『蘇批孟子』는 蘇洵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洪邁의 생몰연대(1123~1202)와 蘇洵의 졸년(1066)을 고려할 때에 『소비맹자』에 洪邁의 평어를 수록한 것을 통해 『蘇批孟子』가 蘇洵의 편찬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명대의 문인이었던 孫緒(1474~1547)가 『無用閒談』에서 지적하였고 이를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이어받아 상세하게 밝혔으며,⁷⁾ 중국문학 연구자인 吳承學 또한 『사고전서총목제요』를 인용하면서 『소비맹자』가 소순의 저작이 아님을 지적하였다.⁸⁾

명대 최초의 판본은 朱得之가 嘉靖 元年(1522)에 간행한 것이다. 이후 명대에 여러 번 간행이 거듭되었다. 그리고 청대에 이르러 趙大浣에 의해 증보 작업이 이루어진

7)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三十七 經部三十七 『蘇評孟子』二卷兵部侍郎紀昀家藏本. 舊本題末蘇洵評. 考是書宋志不著錄. 孫緒無用閒談稱其論文頗精, 而摘其中引洪邁之語在洵以後, 知出依托. 則正德中是書已行矣. 此本爲康熙三十三年杭州沈季云所校, 其子心友刻之. 然無所謂洪邁語者, 豈經緒指摘, 故削之以滅跡耶? 抑並非孫緒所見之本, 又偽本中之重伯耶? 宋人讀書, 於切要處率以筆抹. 故朱子語類論讀書法云, “先以某色筆抹出, 再以某色筆抹出.” 呂祖謙古文關鍵, 樓昉迂齋評注古文亦皆用抹, 其明例也. 謝枋得文章軌範, 方回瀛奎律髓, 羅椅放翁詩選始稍稍具圈點, 是盛於南宋末矣. 此本有大圈, 有小圈, 有連圈, 有重圈, 有三角圈, 已斷非北宋人筆. 其評語全以時文之法行之, 詞意庸淺, 不但非洵之語, 亦斷非宋人語也.

8) 吳承學, 「四庫全書與評點之學」, 『中國文學研究』(輯刊) 第1期, 復旦大學中國古代文學研究中心, 2007, 5~12면.

『增補蘇批孟子』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⁹⁾

趙大浣은 자가 錦川이며, 新會(지금의 廣東省에 속한 지명) 출신이라는 점 이외에 자세한 생애는 알려져 있지 않다. 『增補蘇批孟子』를 편찬하고 서문을 쓴 것이 嘉慶 17년(1812)임을 미루어 볼 때에 청나라 嘉慶 연간(1796~1820)을 전후로 하여 활동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증보소비맹자』는 蘇洵이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蘇批孟子』에다가 조대완이 자신의 평비를 추가하여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은 청나라 때에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또한 조선과 일본에도 전래되어 읽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¹⁰⁾ 명청대에 맹자 평점서가 여러 종 편찬되었는데, 조선과 일본에 전래되어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 맹자 평점서는 조대완에 의해 증보가 된 『증보소비맹자』였다.

조선에 전래되어 수용된 『蘇批孟子』와 관련해 먼저 주목되는 것은 正祖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鄒書』 7편은 道를 전하고 德을 조술한 것으로 원칙과 방법을 자유로이 운용하여 신명스럽게 한 것이니, 소위 그 뜻이 원대하고 그 말이 문체가 있다는 것이다. 濂洛關閩은 그의 도를 배워 그 글의 의미를 밝혔으며, 董仲舒, 賈誼, 韓愈, 歐陽脩는 그 글을 통해서 그 도를 알았다. 그러나 그의 도를 부정하고 그의 문장을 배워서 그 글에 批點을 친 蘇洵 같은 경우는 대체로 『맹자』의 거죽만 아는 자이다. 나는 『鄒書』에 대해서 이미 講義 몇 편을 지어 盡心과 知命의 깊은 내용을 천명하였다. 또 평소에 常課로 암송하던 내용을 편집하여 1권으로 만들어 조석으로 늘 접하는 자료로 삼았는데, 이것은 이 책이 道理의 淵府이고 모든 원칙과 방법의 지극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 7章이다.¹¹⁾

9) 청대에 간행된 맹자 평점서에 대해서는 劉瑾輝, 『清代孟子學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李暢然, 『清代孟子學史大綱』, 北京大學出版社, 2011; 유민정, 「소설 평점비평방법론의 경전으로의 도입: 청대에 출현한 맹자 주석서」, 『대동한문학』 63, 대동한문학회, 2020 등을 참조.

10) 유민정은 청대에 나온 맹자 주석서에 대해 논하면서 『증보소비맹자』가 조선과 일본에 읽혔음을 지적한 바 있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증보소비맹자』가 조선에 전래된 양상과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유민정, 「소설 평점비평방법론의 경전으로의 도입: 청대에 출현한 맹자 주석서」, 『대동한문학』 63, 대동한문학회, 2020.

11) 正祖, 「羣書標記 3」, 『弘齋全書』 181권: 『한국문집총간』 267, 522면. 鄒書七篇, 以傳道述德之言, 運規矩妙方圓, 而神明之, 所謂其旨遠其辭文者也. 濂洛關閩, 得其道而闡其文, 董賈韓歐, 因其文而窺其道. 至若畔於道而求諸文, 如蘇洵之點批, 則蓋亦淺之乎知孟子者也. 予於鄒書, 既有講義諸篇, 以發其盡心知命之蘊. 又以平日之常課諷誦者序次之爲一卷, 以作昕夕常目之資, 皆道理之淵府, 而

위의 인용문은 正祖가 1797년(정조 21)에 맹자의 글을 선별해 놓은 『鄒書敬選』을 편찬하면서 쓴 것이다. 정조가 편찬한 『鄒書敬選』 필사본 1책은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 정조는 맹자의 의리와 문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周濂溪, 程顥, 程頤, 張橫渠, 朱熹 등 성리학자가 ‘맹자의 도를 배워 그 글의 의미를 밝혔다’고 하였고, 董仲舒, 賈誼, 韓愈, 歐陽脩 등의 문장가는 ‘맹자의 글을 통해 그 도를 알았다’고 지적하였다. 대표적인 성리학자와 문장가들이 모두 『맹자』라는 텍스트를 통해 도리와 문장을 터득했음을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맹자의 道를 부정하고 그의 문장을 배워서 그 글에 批點을 친 蘇洵 같은 경우는 대체로 『맹자』의 거죽만 아는 자’라고 혹평을 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批點을 친 蘇洵의 책’은 바로 『蘇批孟子』를 지칭한다. 정조가 읽은 것이 어떤 판본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趙大浣이 증보한 『증보소비맹자』가 출판되기 이전에 정조가 『鄒書敬選』을 편찬하였기 때문에, 正祖가 열람했던 것은 蘇洵의 評批만이 수록된 『蘇批孟子』 중의 한 판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조대완에 의해 증보가 이루어진 『증보소비맹자』가 출간되기 이전의 『소비맹자』를 정조가 읽었던 것이다. 『맹자』를 읽기를 좋아하였던 正祖는 『蘇批孟子』에 대해 맹자의 거죽만을 배운 것에 불과하며 맹자의 도를 부정하였다고 비판을 가하였다. 이러한 정조의 부정적 평가는 『사고전서총목제요』에 나와 있는 평가 - 時文의 법도에 입각하여 평어를 작성했으며, 말의 뜻이 용렬하고 천박하다¹²⁾ - 와 일맥상통한다. 정조가 『鄒書敬選』을 편찬한 배경에는 『蘇批孟子』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蘇批孟子』와 이를 증보한 『增補蘇批孟子』는 명청대에 걸쳐 여러 차례 간행이 되었다. 그런데 朝鮮에 전래된 『蘇批孟子』 이본 가운데 명대에 간행된 판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 후기에 전래된 판본은 모두 청대에 간행된 책이다.

規矩方圓之至者也. 凡七章.

- 12)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三十七 經部三十七 『蘇評孟子』 二卷兵部侍郎紀昀家藏本. 其評語全以時文之法行之, 詞意庸淺.

〈표 1〉 국내 도서관에 소장된 『증보소비맹자』의 주요 판본¹³⁾

書名	發行事項	板種	冊數	所藏處
載詠樓重鐫硃批孟子	慎詒堂, 嘉慶 1(1796)	木版本(中國)	2책	국중
增補蘇批孟子	咸豐 6(1856)	木版本(中國)	1책	국중
增補蘇批孟子	芸居樓, 同治 4(1865)	木版本(中國)	2책	국중, 규장각
增補蘇批孟子	敦仁堂, 同治 12(1873)	木版本(中國)	2책	국중
增補蘇批孟子	兩儀堂, 同治 12(1873)	木版本(中國)	2책	서울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조선 후기에 전래되어 읽혔던 『소비맹자』의 판본은 모두 청대에 출판된 것들이다. 이 중에서 시기적으로 앞선 것이 『載詠樓重鐫硃批孟子』이다. 이 판본은 趙大浣이 편찬한 『增補蘇批孟子』가 출간되기 이전에 나온 것으로 蘇洵의 圈點과 評批만을 수록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正祖가 열람한 『蘇批孟子』의 판본이 이 책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살핀 正祖의 발언, 그리고 1796년에 간행된 『載詠樓重鐫硃批孟子』의 존재를 통해 적어도 18세기 후반에는 『소비맹자』가 조선에 전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전하는 판본은 대체로 趙大浣에 의해 증보된 『增補蘇批孟子』이다. 俞莘煥의 문집에 『소비맹자』나 『증보소비맹자』를 접했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신환이 『맹자』에 평점을 한 배경 중의 하나로 『增補蘇批孟子』의 열람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궁궐 각사에 소장되어 있는 서적의 목록 중에서 『緝敬堂曝曬目錄』을 살펴보면, 『蘇批孟子』 2권이 소장되어 있다. 緝敬堂은 1868년 이후 경복궁 중건 이후 건립된 건물로 이 목록은 1882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緝敬堂은 내외 신료를 접견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었는데, 2만여 책이 소장되어 있었다. 緝敬堂에 소장되어 있던 『蘇批孟子』는 1865년 간행된 芸居樓藏板이다. 그리고 고종의 개인서재였던 集玉齋에도 『蘇批孟子』 2권이 소장되어 있었다. 『집옥재서적목록』 내에 『소비맹자』 이외에 맹자의 원문을 탁본하여 서첩으로 제작한 청대 석판본 『孟子文概』(2권), 黃宗羲의 『孟子師說』(2권) 등이 있다.¹⁴⁾

13) 20세기 이후 출판된 石版本, 鉛印本 등은 제외하였다.

14) 규장각에 소장된 서적에서 『맹자』 판본에 대해 조사한 연구 성과로 함영대, 「규장각 소장 『맹자』 판본 연구」, 『한국문화』 7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을 참조.

또한 고려대에는 『瑞墨齋重訂蘇老泉評點孟子』라는 필사본 2책이 소장되어 있다. 朱色, 靑色, 墨色の三色으로 구분하여 정성스럽게 필사한 책인데, 명청대에 간행된 『蘇批孟子』의 판본 중의 하나를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의 하나로 일본에서 1880년 井上揆가 편찬하여 간행한 『增補蘇批孟子』(일본 내각문고 소장본)의 ‘양혜왕 하편’ 13장 상단에 ‘瑞墨齋本, 王者下有矣字’라는 문구를 들 수 있다. “서목재본에는 ‘王者’ 아래에 ‘矣’자가 있다”는 일본 편자의 언급을 미루어볼 때에 고려대 소장본 『瑞墨齋重訂蘇老泉評點孟子』는 명청대에 간행된 『소비맹자』의 한 판본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清代에 趙大沆에 의해 간행된 『增補蘇批孟子』는 조선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전래되어 읽혔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藤澤南嶽의 校疏本이 1880년 간행되었으며, 같은 해에 井上揆가 纂評을 한 『증보소비맹자』가 간행되었다. 井上揆의 纂評本은 조대완의 『증보소비맹자』에다가 일본인 평자인 賴山陽, 尾藤二洲, 鹽穀宕陰의 평비를 추가하여 편찬한 책이다. 이 중에서 에도 시대의 유명한 역사가였던 賴山陽(1780~1832)의 평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賴山陽이 『맹자』에 평비를 붙인 『孟子評點』을 활용하였다. 유학자 尾藤二洲(1745~1814)는 柴野栗山, 古賀精里와 함께 寛政의 三博士로 불렸던 인물이다. 그는 에도 시대의 유학자이며 교육가로 유명하였는데, 賴山陽은 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鹽穀宕陰(1809~1867)는 에도 말기의 유학자로서, 페리호가 일본에 왔을 때에 海防에 관한 저술을 남겼으며, 昌平黌教授로 발탁되기도 했다.

에도 시대의 유학자이며 역사가였던 賴山陽(1780~1832)은 『맹자』 평점서 『孟子評點』을 지었다.¹⁵⁾ 『맹자평점』에 대한 해제를 살펴보면, 이 책은 1808년 그의 나이 29세의 젊은 때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賴山陽은 『孟子評點』의 서문에서 세상의 유자들이 맹자를 경시하고 맹자의 문장을 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맹자의 문장을 좋아하여 날마다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에 권점을 찍고 평비를 하고 단락을 구분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소순이 편찬했다고 알려진 『蘇批孟子』를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서 보면 賴山陽은 『소비맹자』의 영향을 받아 『맹자평점』을 저술했음을

15) 『맹자평점』을 현대 활자화하여 『賴山陽全書』에 수록하였다. 木崎愛吉 賴成一 共編, 『賴山陽全書』, 賴山陽先生遺跡顯彰會, 1931. 그리고 일본 와세다대학에는 賴山陽의 『맹자필기』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책은 『맹자평점』의 일부 내용이 필사되어 있다.

알 수 있다. 賴山陽은 『맹자평점』에서 ㄴ, ㄹ, ㄴ, ㄴ 등의 부호를 사용하여 妙處, 着眼, 大段, 小段, 主意 등을 구분하였으며, 旁批와 眉批 등을 활용하여 작품의 표현과 구성 등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였다.¹⁶⁾ 앞으로 일본에서 간행되어 읽힌 『증보소비맹자』를 포함하여 한중일 삼국에서 열독하였던 이들 책의 평비를 상호 비교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Ⅲ. 『孟子批評』의 編者和 구성

학계에 새롭게 소개할 『맹자비평』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孟子批評

尹明善 編

筆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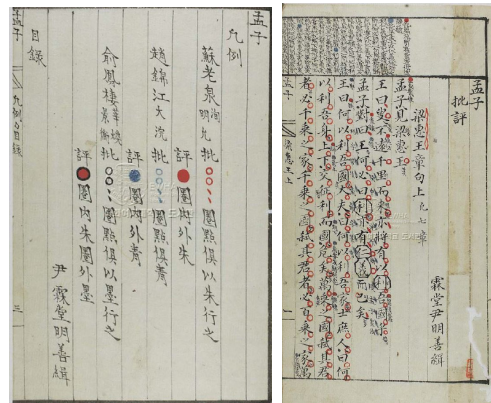
1冊(115張) : 四周單邊 外半郭 23.4 x 13.5 cm 內半郭 19.7 x 13.5 cm, 有界, 半葉 10行20字, 上下向白魚尾 ; 27.5 x 16.5 cm.

序 : 趙太浣, 尹明善

印 : 尹範求印

소장처 : 이화여대 도서관

16) 賴山陽은 『增評唐宋八家文讀本』도 남겼는데, 『당송팔대가독본』에 자신의 평어를 추가하여 편찬한 평점서이다.



〈그림 1〉 이화여대 소장본 『孟子批評』의 범례와 본문

『맹자비평』은 1887년에 尹明善(1851~?)에 의해 편찬된 평점서로서, 1책의 필사본이다. 蘇洵, 趙大浣, 俞莘煥의 圈點과 評批를 색깔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은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선학자가 작성한 유일의 『맹자』 평점서이다. 또한 국내외에 다른 이본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화여대 소장본만이 유일하게 전해진다.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맨 앞에 趙大浣의 서문과 윤명선의 서문이 실려 있다. 조대완의 서문은 1812년에 작성한 것이며, 윤명선의 서문은 1887년에 작성한 것이다. 서문에 이어 凡例·大成殿圖·啓聖祠之圖·文宣王紀年攷異編·年譜·序說이 수록되어 있고, 이어서 본문이 시작한다.

凡例에는 蘇洵과 趙大浣, 俞莘煥의 批와 評을 부호와 색깔에 의해 구분해 놓았음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批는 인상적이거나 주요한 글자나 구절에 찍는 圈點을 의미하며, 評은 자구와 편장에 관한 비평적 설명과 분석을 뜻한다. 圈點은 圓圈과 尖圈을 사용했는데, 색깔에 따라 소순·조대완·유신환의 권점을 朱色·青色·墨色으로 구분했다. 評에 있어서는 소순은 ‘圈內外朱’라고 해서 둥근 부호의 안과 테두리를 모두 붉은 색으로 표시했다. 그리고 조대완의 평은 ‘圈內外青’이라고 해서 둥근 부호의 안과 테두리를 모두 푸른 색으로 표시했다. 俞莘煥의 경우에는 ‘圈內朱圈外墨’이라고 하여 둥근 부호의 안은 붉은 색으로, 테두리는 墨色으로 표시했다. 이처럼 부호와 색깔을 통해 세 사람의 批와 評을 시각적으로 구분해 놓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각 평자의 비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세 사람의 평비를 구분하는 법을 설명한 凡例에 이어 大成殿圖·啓聖祠之圖·文宣王紀年攷異編·年譜·序說 등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맹자연보는 청대 목판본으로 조선에 전래된 『증보소비맹자』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는 『孟子批評』에만 나온다. 序說은 『孟子集註』의 앞에 실려 있는 朱熹의 서문을 가리킨다. 序說에 이어 『맹자비평』의 본문이 나온다. 『맹자비평』 본문이 끝난 다음에 『맹자』 마지막 장에 대한 朱子註(程頤가 쓴 程顥의 墓表를 포함)를 수록하였다. 이 부분 역시 윤명선에 의해 추가된 것이다.

『맹자비평』은 소순, 조대완, 유신환의 권점과 평을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口訣吐, 句讀點, 聲調, 한글음 등을 표시하였다. 『증보소비맹자』에도 구두점을 표시하였고, 특정 글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平上去入의 성조를 부호를 써서 표시하였다. 여기에 더해 『맹자비평』에는 구결토와 한글음이 더 추가되어 있다. 구결토를 붙일 때에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를 모두 쓴 사례도 있다. 예컨대 ‘狗彘食人食而不知檢, 塗有餓莩而不知發, 人死則曰, ‘非我也, 勢也.’(梁惠王上 3장)에서 ‘歲也’에 구결토를 붙이면서 ‘라하나니’와 ‘이라하면’ 두 가지를 모두 다 써놓았다.

성조를 표시한 예를 보면, ‘七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梁惠王上 3장)에서 ‘王’에 대해 ‘去聲’으로 표시하였다. ‘왕노릇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獸相食且人惡之’(梁惠王上 4장)에서 ‘惡’에 대해 글자 옆에 ‘去聲’이라고 쓰고 ‘오’라는 한글음까지 달았다. 이처럼 『맹자비평』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한자 옆에는 한글로 음을 표시했다. 예컨대 ‘民有飢色, 野有餓莩, 此率獸而食人也.’(梁惠王上 4장)에서 ‘莩’ 옆에 한글음 ‘표’를 적어둔 것이 그 한 예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맹자비평』에는 권점과 평비 이외에 구결토, 구두점, 성조, 한글음 등을 표시해 돕으로써 초학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맹자비평』의 편자는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尹明善이다.¹⁷⁾ 자는 汝新, 호는 霖堂, 본관이 海平이다.¹⁸⁾ 그의 10대조가 조선전기 문장가로 유명하였던 尹斗壽이다.

17) 윤명선의 가계와 생애와 관련해 『해평윤씨대동보』, 장서각에 소장된 『崇禎後五庚辰增廣別試司馬榜目』를 참고하였다. 해평윤씨대동보 간행위원회 편, 『해평윤씨대동보』, 해평윤씨대동보 간행위원회, 2005.

18) 『해평윤씨대동보』에는 윤명선의 자를 ‘汝信’으로 기록하였고, 장서각에 소장된 『崇禎後五庚辰增廣別試司馬榜目』에는 윤명선의 자를 ‘汝新’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정조 연간에 이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한 尹蓍東은 윤명선의 從曾祖父이다. 윤명선은 1851년에 부친 尹致祖(1819~?)와 모친 靑松沈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윤치조는 자가 殷老, 호가 丹樊이며, 1859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朝野詩選』에 시가 실려 있다. 친동생 尹致聃과 함께 鳳棲 俞莘煥(1801~1859)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봉서 유신환의 문하에서는 많은 문인과 학자들이 배출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金洛鉉·閔泳穆·尹致祖·尹致聃·閔台鎬·閔奎鎬·金晩植·金允植·金光植·韓章錫 등을 들 수 있다.¹⁹⁾ 윤치조·윤치담 형제는 유신환의 문하에 출입한 제자 중에서 두드러진 성취를 보인 인물이었다. 유신환의 문집 『鳳棲集』에는 윤치조와 윤치담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²⁰⁾ 尹致聃(1821~?)은 자가 周老, 호가 丈藕로, 음직으로 벼슬길에 올라 健陵參奉을 지내다가 1874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1875년에는 서장관으로 중국을 다녀왔으며, 成均館大司成·吏曹參議 등을 역임하였다.

『孟子批評』의 편자 尹明善의 생애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장서각에 소장된 『崇禎後五庚辰增廣別試司馬榜目』과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879년 관학 유생으로 있다가 1880년 증광시 진사에 합격하였다. 이후 典圖書 위원, 형조좌랑, 分兵曹參知, 鎭川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부인은 청풍김씨이고, 아들 尹範求를 낳았다. 족보에 따르면 尹範求 이후 후사가 보이지 않는다. 『맹자비평』에는 ‘尹範求印’이라는 소장인이 서문이 시작하는 장의 하단, 본문이 시작하는 장의 하단,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의 하단에 찍혀 있다. 현재 전하는 『맹자비평』은 편자인 윤명선의 아들 윤범구가 소장하고 있던 책으로 추정된다.

윤명선이 『맹자비평』을 편찬한 것은 그의 부친이 봉서 유신환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윤명선의 부친 윤치조가 유신환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이때 유신환이 『맹자』에 평비 작업을 한 것을 윤치조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아들 윤명선에게 전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신환은 『독서기』에서 맹자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문학비평적 관점은 아니고 사상 학술적

19) 南廷哲, 「諡狀」, 『鳳棲集』 부록, 『한국문집총간』 312, 161면. “凡近世士友之以德業行誼文學稱者, 皆出於門下. 如尹公秉鼎秉益, 徐公應淳, 朴公洪壽, 李公應辰, 金公洛鉉, 閔公泳穆, 尹公致祖致聃, 閔公台鎬奎鎬, 金公晩植允植光植, 韓公章錫, 其著也. 餘不能盡載.”

20) 俞莘煥, 「答尹殷老(致祖)」, 『鳳棲集』 권2, 『한국문집총간』 312, 24면; 俞莘煥, 「答尹周老(致聃)」, 『鳳棲集』 권2, 『한국문집총간』 312, 25면.

측면에서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²¹⁾ 하지만 『맹자비평』에 수록된 유신환의 평비를 통해 그가 『맹자』 문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맹자』 텍스트를 문장학의 관점에서 매우 세밀하게 분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尹明善은 『맹자비평』을 편찬하게 된 동기를 서문에서 밝혀 두었다.

예전에 전해지는 조대완이 증보한 『증보소비맹자』의 간행본은 간명하게 평을 붙여 초학자들의 지침서가 된다. 근래 杞溪 俞先生[유신환]이 다시 조씨가 증보한 것을 따라 더욱 늘리고 보완하였다. 자구를 풀이하고, 문장이 이루어지자 법도가 세워진 오묘함에 대해 남김없이 파헤쳤다. 안타까운 것은 조대완의 책은 평을 인쇄하였기 때문에 열람하는 사람이 마음과 눈에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유선생의 책은 거칠게 써놓은 것이어서 廬山의 진면목을 잃어버렸다. 우매함을 헤아리지 않고 범례를 짓고 붉은 색, 푸른 색, 그리고 검은 색으로 권점을 하여 구별함으로써 각자의 평을 보기에 편하게 하였다. 그리고 맹자연보와 맹자서설, 그리고 정명도의 묘표를 부록으로 수록하였으니, 사람을 알고 세상을 논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²²⁾

서문에 의하면 조대완이 편찬한 『증보소비맹자』은 墨色과 朱色을 사용해 인쇄한 套印本이기 때문에 권점과 평비를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지만, 유신환의 평비는 먹만을 사용한 필사본 형태여서 보기에 불편하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증보소비맹자』는 붉은 색의 권점을 사용하여 소순의 평비를 표시하였고, 검은 색의 권점을 사용하여 조대완의 평비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朱色, 靑色, 墨色으로 구분해 놓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孟子年譜와 序說 등을 함께 수록한 것은 ‘知人論世之一助’, 즉 맹자와 그

21) 유신환이 『맹자』에 평비를 달았거나 『맹자』의 문장을 평가한 내용을 문집 『봉서집』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유신환의 부친 俞星柱가 특히 『맹자』를 좋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유신환이 『맹자』에 평비를 붙인 것과 관련해 부친 俞星柱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俞莘煥, 「先考復元齋年譜後記」, 『鳳棲集』 권8, 『한국문집총간』 312, 147면. “於書, 最喜孟子, 於東方諸賢, 最慕尤庵先生. 常曰, 學顏子, 不如學孟子之有力.”

22) 尹明善, 「孟子批評序」, 『孟子批評』(이화여대 소장본) “向傳趙氏補蘇批刻本, 約略指點, 爲初學之津梁. 近杞溪俞先生更從趙氏補, 而增補之. 字解句釋, 於文成法立之奧, 抉摘無遺矣. 所可惜者, 趙本刻訂, 故閱者了然於心目. 俞先生草草行墨, 殊失廬山眞面. 不忖樸味, 爲此凡例朱青若墨圈點以別, 俾便各訂. 且附入孟子年譜序說及程明道墓表, 未必非知人論世之一助也.”

시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함이었다.²³⁾

한편 정조 때의 문신이었던 尹行恁이 『孟子』의 구절에 붉은 색으로 권점을 찍은 책이 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孟子, 史記, 莊子 중에서 문장을 선별하고 권점을 찍어 『留餘觀選誦』(필사본, 3책)을 편찬하였다. 각 책의 표제는 孟子精選, 莊氏略選, 太史公文選으로 되어 있으며, 권수제면 하단에 ‘尹行恁印’ 장서인이 찍혀 있는 手澤本이다. 현재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윤행임이 편찬한 『留餘觀選誦』 내의 『맹자』 부분을 살펴보면, 『맹자』에서 문장을 선별하여 구결토를 붙였고, ‘齊宣王’, ‘胡齋’ 등 고유명사에 붉은 색 권점을 찍었고, 『시경』이나 『서경』 등에서 인용한 구절에도 붉은 색 권점을 찍었다. 편자 자신이 애호하는 문장을 선별하여 읽고 외우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편찬된 것으로, 인상적인 구절이나 문장 표현이 훌륭한 곳에 권점을 찍고 평어를 덧붙이는 평비 방식과는 구별된다. 송독을 위한 텍스트로서 『맹자』의 문장을 자신의 안목으로 선별하고 송독을 위한 구결토를 붙였으며 고유명사와 인용 구절에 붉은 색의 권점을 찍었다.

『孟子批評』에 나타난 평비 양상의 일단을 살펴보기 위해 『맹자』 양혜왕상의 1장을 대상으로 魏伯珪의 『孟子筭義』, 李象秀의 『孟子筆程』을 함께 제시해 본다. 다음은 『맹자』 양혜왕상 1장에 대해 다룬 『맹자비평』, 『맹자차의』, 『맹자필정』을 인용한 것이다.

① 맹자께서 양혜왕을 뵈니[소순: 한 구로 끊어 멈추었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노인께서 천리를 멀다고 하시지 않고 오셨으니 [소순: 완곡하고 절실하다]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유신환: 뒤에 의논할 사안을 남기었다]라고 하였다. 맹자가 대답하였다.[소순: 곧바로 간언을 하였다] “왕께서는 어찌 반드시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조대완: 제기하다] 또한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조대완: 거둬하다] [유신환: 꺾다]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며, 士와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여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23) 尹明善, 「孟子批評序」, 『孟子批評』(이화여대 소장본) “近杞溪俞先生更從趙氏補, 而增補之. 字解句釋, 於文成法立之奧, 抉摘無遺矣. 所可惜者, 趙本刻訂, 故閱者了然於心目. 俞先生草草行墨, 殊失廬山真面. 不忖樸味, 爲此凡例朱青若墨圈點以別, 俾便各訂. 且附入孟子年譜序說及程明道墓表, 未必非知人論世之一助也.”

이로움을 취하게 되면 [조대완: 위를 묶는다] [유신환 : 묶다]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조대완: 아래를 일으키다] 만승의 나라에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유신환: 뒤집어 전환하다] 반드시 천승을 가진 공경의 집안이며, 천승의 나라에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백승을 가진 대부의 집안이니, 만승에서 천승을 취하며 [조대완: 변화감있게 여는 것이 흔들거린다] [유신환: 합하여 꺾다] 천승에서 백승을 취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만일 의를 뒤로 하고 이로움을 먼저 한다면 [조대완: 합하다] [유신환: 전환하다] 빼앗지 않으면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인하고서 그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있지 않으며, [소순: 다시 윗구로 나아가 인과 의를 나누어 열었으니, 완곡하고 절실하다] [유신환: 전환하고 꺾는데 신이한 힘이 있다] 의롭고서 그 군주를 뒤로 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유신환: ‘後’라는 한 글자는 이 편에서 단지 이로움만을 말하고 있음을 숨겨놓고 있으며, 인과 의 두 글자는 가려져 있다] [유신환: 正說이니, 두 구로 인과 의를 나누었다] 왕께서는 또한 인의를 말씀하실 뿐이니 [조대완: 호응하다] 어찌 반드시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유신환: 앞머리와 호응을 하면서도 겨꾸로 말하였다]²⁴⁾

② 첫머리는 왕의 말로 인하여 먼저 利를 말하였고, 마지막은 자신의 말로 인하여 먼저 仁義를 거론하고 이어서 “어찌 반드시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라는 말을 다시 반복하였다. 맹자의 언변이 뛰어나고 시원시원하여 듣는 사람을 놀래고 펴먹 깨닫게 한다. 한 장 안에 시작과 끝맺음이 분명하니, 이것이 훗날 문장가들의 祖宗이다. 대체로 『맹자』는 매 장마다 반전과 마무리가 치밀하

24) 尹明善, 「梁惠王上」, 『孟子批評』(이화여대 소장본) 孟子見梁惠王. [蘇云, 一句截住] 王曰, “叟不遠千里而來[蘇云, 婉切, 亦將有以利吾國乎?] [俞云, 留後案]” 孟子對[蘇云, 直諫曰, “王何必曰利?” [趙云, 提] [俞云, 跖] 亦有仁義而已矣. 王曰, “何以利吾國?” [趙云, 申] 大夫曰, “何以利吾家?” 士庶人曰, “何以利吾身?” 上下交征利[趙云, 東上] [俞云, 紆] 而國危矣.[趙云, 起下] 萬乘之國, [俞云, 翻轉] 弑其君者, 必千乘之家, 千乘之國, 弑其君者, 必百乘之家. 萬取千焉[趙云, 宕開搖曳] [俞云, 合折], 千取百焉, 不爲不多矣. 苟爲後義而先利[趙云, 合] [俞云, 轉], 不奪不饜. 未有仁而遺其親者也[蘇云, 却正就上句, 分開仁義, 婉切] [俞云, 轉折有神力], 未有義而後其君者也. [俞云, 一後字伏篇中只說利, 而仁義二字暗也] [俞云, 正說, 二句分仁義] 王亦曰仁義而已矣[趙云, 應, 何必曰利?”] [俞云, 抱首覆說] 본래 『맹자비평』에는 소순, 조대완, 유신환의 평어를 색깔과 모양으로 각각 다르게 표시하였지만, 여기에서는 각 평자의 이름으로 구분을 하였다. 조대완과 유신환의 경우 趙云, 俞云으로 표시하였다. 旁批는 해당 구절이나 문장이 시작하는 위치에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해당 구절이나 문장 뒤에 표시하였다. 그리고 소순과 조대완의 眉批와 尾批는 생략하였다.

고 긴절하여 그 속에 무한한 조화가 숨겨져 있으니, 이 역시 문장가의 호방함과 절묘함이다.²⁵⁾

③ 양혜왕이 맹자를 만나서 입만 열면 ‘利’자를 말했으니, 그가 가슴 속에 붙들고 있는 것이 모두 이것임을 알 수 있다. 맹자가 곧장 한쪽으로 차버리고 ‘仁義’를 말했으니, 마치 냉수를 등에 끼얹는 듯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깨게 한다. ‘何必’이라고 말한 것은 “어찌하여 이것을 준칙으로 삼으십니까?”라고 말한 것이고, ‘而已’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아니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주희의 『맹자집주』에서 “이 두 구는 바로 한 장의 대旨이다”라고 한 것은 이 장에 대해 말한 것이다.²⁶⁾

①은 『맹자비평』이며, ②와 ③은 魏伯珪와 李象秀의 평이다. 『맹자』를 비평하는 방식은 크게 講章式과 評點式으로 구분된다. 講章式은 각 章別로 나누어 비평을 하는 방식이며, 評點式은 圈點 부호와 眉批, 旁批, 尾批 등을 통해 맹자 텍스트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며 세밀하게 비평을 하는 방식이다. 講章式을 취한 『맹자차의』와 『맹자필정』은 맹자 텍스트의 문학적 측면 뿐만 아니라 맹자의 사상 등을 함께 다루었다. 특히 『맹자차의』의 경우에는 맹자의 사상 방면에 대한 논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孟子批評』은 평점식을 택하였으며, 순전히 문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編章 구성 및 字句法, 풍격, 文勢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같은 방식은 시문 위주로 이루어졌던 평점 방식의 관행이 경전 텍스트로 확장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①에서 蘇洵의 旁批인 ‘一句截住’는 “孟子見梁惠王”라는 문장에 붙어 있는 것인데, 맹자가 양혜왕을 찾아와 알현을 하였다는 의미를 하나의 구로 끊어서 간명하게 표현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나오는 “叟不遠千里而來”라는 구절에 붙어 있는 ‘婉切’이라는 평어는 완곡하고 절실하게 맹자에게 물음을 청하는 양혜왕의 태도를 담고

25) 魏伯珪, 「讀書簡義(孟子)」, 『存齋集』 권9, 『한국문집총간』 243, 182면. “起頭因王言而先舉利, 結尾因己言而先舉仁義, 仍以何必利翻蹴了。口氣英爽, 令人悚悟。一章之內, 起結分明, 此是後來文章家祖宗。大凡孟子一書, 每章翻軸管鎖, 縝密緊切, 中藏無限造化, 亦文章家豪雄妙絕者也。”

26) 李象秀, 「孟子筆程」, 『崑堂集』 권18, 『한국문집총간속집』 134, 366면. “梁惠王見孟子, 開口說利字, 見其撐拄胃中皆是也。孟子便踢去一邊說出仁義, 如冷水澆背, 令人醒魂。曰何必者, 言何爲以此準的也。曰而已者, 言非此更無餘術也。集注此二句乃一章之大指, 就此章言之也。”

있음을 나타낸다. 『맹자비평』에는 소순과 조대완의 평어 이외에 俞莘煥의 평어를 수록하였는데, “亦將有以利吾國乎?”라는 문장에서 ‘利吾國’에 ‘留後案’이라는 평어를 달았다. ‘뒤에 이어서 논의하게 될 주제나 현안을 남겨 두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 나라를 이롭게 하다’는 문구 속에 뒤에서 논의하게 될 문제 혹은 주제 등이 이미 내포되어 있음을 설명한 평어이다. 일종의 암시 혹은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한 평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평어는 ‘跌’과 ‘紐’이다. ‘跌’은 문장의 기세를 꺾거나 전환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跌宕으로도 사용되는데, 사물이 다채롭게 변화하고 변화가 풍부하며 곡절파란이 있음을 가리킨다. 문장 기세에 변화를 가미하여 화제를 전환하고 관심사를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문장 변화의 흐름을 묶어주고 결속시키는 것이 ‘紐’이다. 이러한 ‘跌’과 ‘紐’의 표현 방법은 ‘開闔’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모두 문장의 흐름을 밋밋하고 건조하게 만들지 않고, 變化起伏를 줌으로써 문장의 波瀾과 節奏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위의 인용문 ①에 나오는 유신환의 평어 중에서 ‘跌’·‘紐’·‘合折’·‘轉’·‘轉折有神力’ 등이 모두 문장의 파란기복과 관련되는 평어이다. 이같은 점은 『맹자비평』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바, 變化起伏를 통한 문장의 波瀾과 節奏를 중시하였던 俞莘煥의 문장관의 일단을 짐작케 한다.

“인하고서 그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있지 않으며, 의롭고서 그 군주를 뒤로 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者也]”라는 문장에 대한 유신환의 평어에서 ‘正說’은 본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부분을 가리킨다. 이 부분에 이르러서 맹자 자신이 본래 의도하고자 하는 주된 핵심 요지를 드러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仁과 義로 나누어서 두 구로 표현한 점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이 장에서 仁義가 가장 핵심적이며 관건이 되는 용어이며, 이 두 글자를 나누어 두 구로써 맹자의 핵심적인 주지를 담아낸 점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맹자비평』 「양혜왕상」 1장에는 ‘仁’·‘義’·‘利’ 세 글자에 육각형으로 테두리를 하였는데, 이것은 각 편의 핵심어, 관건어에 해당되는 것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이 이후에도 각 편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글자에 이러한 부호를 사용하였다. 핵심이 되는 글자나 구절에 육각형 테두리를 하는 것은 『증보소비맹자』에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유신환은 이 장의 마지막 문장의 표현 수법에 대해 지적하였다. 유신환

의 평어 - ‘앞머리와 호응을 하면서도 거꾸로 말하였다[抱首覆說]’ - 는 이 장의 서두와 긴밀하게 호응을 이룬 점, 즉 首尾相應을 가리키는 것인 동시에, 이 장의 서두와 마무리에서 仁義와 利의 순서를 서로 뒤바꾸어 절묘하게 표현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두에서는 “왕께서는 어찌 반드시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라고 말하였는데, 마무리에 와서는 “왕께서는 또한 인의를 말씀하실 뿐이니, 어찌 반드시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王亦曰仁義而已矣, 何必曰利]”라고 하였다. 서두에서는 利를 말하고 나서 仁義를 언급했는데, 마무리에서는 반대로 仁義를 먼저 언급하고 나서 利를 나중에 말하였다. 같은 내용을 다른 문장을 장의 처음과 끝에 두어 수미상응의 효과를 연출하면서도 仁義와 利의 순서를 뒤바꾸어 단조로움을 피하고 변화감을 가미하였다.

『맹자비평』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俞莘煥의 평비이다.²⁷⁾ 그의 평비 작업은 소순과 조대완의 평비가 놓치거나 간과했던 부분에 적절한 評語와 圈點을 붙임으로써 소순, 조대완의 평어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유신환의 평비는 그의 문장관과 상호 연관될 것으로 생각되며, 유신환 및 그 문하제자들에게 의해 수행된 평비 작업과도 연관된다. 유신환은 六經과 四書의 문장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²⁸⁾

문기를, “문자를 배워서 능히 할 수 있습니까?”라 하니, 답하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요체가 있습니까?”라 물으니, 다음과 같이 답했다. “있다. 이가 주가 되고, 기는 그 다음이고, 법은 또 그 다음이다.”고 하였다.

한유, 유종원, 구양수, 소식은 법을 가지고 기빠한 자이니, 기는 부족하였다. 선진과 양한의 문장은 기를 가지고 기빠한 자이니, 이는 부족하다. 이가 있고 기가 있으며 법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오직 육경과 사서의 문장이로다.²⁹⁾
다른 자료에서 유신환은 六經을 근본으로 삼고 제자백가를 참고하고, 秦漢에서

27) 이 논문에서는 유신환의 평비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28) 유신환의 고문관과 관련해서는 정민, 『조선후기 고문론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을 참조.

29) 俞莘煥, 「讀書記(下)」, 『鳳樓集』 권7, 『한국문집총간』 312, 117면. “問, 文可學而能乎? 曰可. 有要乎? 曰有. 理爲之主, 氣次之, 法又其次也. 韓柳歐蘇, 以法爲悅者也, 氣則未也. 先秦西漢, 以氣爲悅者也, 理則未也. 有理有氣, 法亦在其中者, 其惟六經四子之文乎.”

제재를 취하고 唐宋에서 법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작가의 正道라고 말하기도 하였다.³⁰⁾ 유가의 기본 경전이 문학창작의 근본임을 강조한 것은 그 이전부터도 찾아볼 수 있는데, 유신환은 고문가의 입장에서 유가 경전을 중시하였고, 또한 그같은 유가 경전의 중시 입장은 『맹자』의 문장에 주목하게 하였다. 앞서 지적했듯이 주희 또한 맹자의 문장을 통해 그 의리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문장의 법도를 깨우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俞莘煥 또한 문학 창작에 있어 유가 경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맹자 문장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俞莘煥은 아마 제자들과의 강학 과정 속에서 맹자 텍스트를 읽고 평비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그 과정에는 『증보소비맹자』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고문가로서 문학 창작에 있어 유가 경전의 근본성을 강조하였던 俞莘煥의 산문관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 『鳳棲集』에는 간행본 『봉서집』에는 빠져 있는 글들이 여럿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봉서집』 권5에 수록된 「讀歸去來兮辭」가 『맹자비평』과 관련해서 주목된다.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句로 나누어 각 句의 의미와 표현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한 글이다. 예컨대 「歸去來辭」의 첫부분에 나오는 ‘田園將蕪，胡不歸’에 대한 설명을 보면, “田園，託辭也。淵明之歸不歸，豈在田園之蕪不蕪哉?”라고 평하였다. 그리고 「귀거래사」의 주요 구절이나 표현에 대한 俞莘煥의 견해를 항목별로 나누어 서술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松與菊，說者以爲自喻。淵明豈若是區區者哉? 因其所見而言之而已矣.”라고 하였다. 이러한 俞莘煥의 언급은 문학 작품에 대한 세밀한 讀解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맹자비평』에 수록된 俞莘煥의 評批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유신환과 그 주변 인물, 그리고 문하제자들은 평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 『鳳棲集』을 보면, 俞莘煥의 작품에 대해 金邁淳과 洪奭周가 尾批를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¹⁾ 유신환, 김매순, 홍석주가 상대방의 작품을 읽고 상호간의 평비 활동을 전개했음을 엿볼 수 있다.

俞莘煥의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韓章錫(1832~1894)은 『三觀子海山小史』라는

30) 俞莘煥, 「答李公五」, 『鳳棲集』 권2, 『한국문집총간』 312, 23면. “本之以六經，參之以百家，取材於秦漢，而取法於唐宋，果是作家之正道。”

31) 예컨대 俞莘煥의 「送淵泉洪公如燕序」(辛卯)(『봉서집』 권3)에 대해 “臺山曰，劈畫指陳，節節中窾，在漢則量，在宋則蘇。又曰，千里行龍，到頭一穴。又曰，以文體言之，近於策論。”라는 미평이 실려 있다.

저술을 남겼다. 이 책은 1865년 5월 금강산 유람을 다녀온 경험을 쓴 기행문으로, 기문은 39편, 한시는 120편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산수유기 작품의 본문에 대해 眉批의 형태로 작품 감상평들을 수록해 놓았다는 점이다. 산수유기를 주변인들이 읽고 비평을 하였던 작품 환경을 짐작케 한다.³²⁾ 앞으로 유신환과 그 주변 인물과 문하제자들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評批 활동 및 그 작업 결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IV. 나오며

『孟子批評』은 조선후기 비평사의 흐름 속에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맹자 평점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평점 비평의 방식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시와 산문에서 출발하여 조선후기에 이르면 소설과 희곡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시문, 소설, 희곡 등의 문학작품에 한정하지 않고, 경전과 역사서, 제자백가로부터 장르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다. 『史記』 貨殖列傳에 대한 주석 및 비평작업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맹자』 텍스트에 대한 문학적 분석은 『맹자비평』 이전에 魏伯珪의 『맹자차의』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비평방식은 각 장별로 구분하여 비평적 언술을 하는 이른바 講章式이었다. 『맹자비평』은 위백규의 비평작업을 계승하면서 각종 권점 부호와 평어를 통해 맹자 텍스트에 대한 세밀한 분석 비평을 진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맹자 텍스트의 구성과 전개 방식, 문장의 기세와 풍격, 자구법, 각종 표현기법 등 다방면에 걸쳐 매우 구체적이며 세밀한 비평을 진행하였다. 李象秀의 『孟子筆程』이 장별로 나누어 맹자 텍스트에 대해 문학적 분석을 가한 講章式 저술이라면³³⁾, 尹明善에 의해 1887년에 편찬된 『孟子批評』은 조선후기 평점비평사의 흐름 속에서 명실상부한 맹자 평점서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3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정우봉, 「조선후기 遊記의 글쓰기 및 향유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연구』 49, 한국한문학회, 2012.

33) 『맹자필정』을 분석한 논문으로 신재식, 「어당 이상수의 맹자 문법」, 『동양한문학연구』 55, 동양한문학회, 2020을 참조.

또한 『맹자비평』은 청대에 간행된 『增補蘇批孟子』의 조선적 수용을 보여주는 문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맹자비평』에는 蘇洵과 趙大澐의 권점과 평비에 더하여 19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산문가였던 俞莘煥의 권점과 평비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들 세 사람 각각의 평비를 한 곳에 모아놓음으로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중국본에 없는 口訣吐, 한글음을 더 추가함으로써 조선의 초학자들이 맹자 텍스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증보소비맹자』가 조선에 전래되어 수용된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증보소비맹자』에 유신환의 평어를 추가하여 소순, 조대완, 유신환의 평비를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편찬한 『맹자비평』을 처음 학계에 소개하였다. 『맹자비평』에 나타나 있는 유신환의 평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별도의 논문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尹明善 編, 『孟子批評』, 이화여대 소장본
蘇洵 趙大沔, 『增補蘇批孟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_____, 『增補蘇批孟子』, 규장각 소장본
_____, 『增補蘇批孟子』, 서울대도서관 소장본
魏伯珪, 『孟子節義』, 『한국문집총간』 243집
李象秀, 『孟子筆程』, 『한국문집총간』 속134집
正祖,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 262~267집
_____, 『鄒書敬選』, 장서각 소장본
尹行恁, 『留餘觀選誦』, 전남대 도서관
해평윤씨대동보 간행위원회 편, 『해평윤씨대동보』, 해평윤씨대동보 간행위원회, 2005
木崎愛吉 賴成一 共編, 『賴山陽全書』, 賴山陽先生遺跡顯彰會, 1931
賴山陽, 『孟子筆記』, 일본 와세다대 소장본
沈德潛 評點 賴襄 增評, 『增評唐宋八家文讀本』, 일본 와세다대 소장본
井上揆 纂評, 『增補蘇批孟子』, 일본 내각문고 소장본
- 정민, 『조선후기 고문론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劉瑾輝, 『清代孟子學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李暢然, 『清代孟子學史大綱』, 北京大學出版社, 2011
- 김성중, 「존재 위백규의 맹자차의 연구」, 신진문철 간행위원회 편, 『신진문철』, 월인, 2002
신재식, 「어당 이상수의 맹자 문법」, 『동양한문학연구』 55, 동양한문학회, 2020
안대회, 「사기 화식열전 주석서와 그 수사학적 해석」, 『대동문화연구』 113, 성균관대 대동문화 연구원, 2021
유민정, 「위백규의 수사학적 경전 해석: 맹자차의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2018
_____, 「한중일의 수사학적 경전 해석」,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9
_____, 「소설 평점비평방법론의 경전으로의 도입: 청대에 출현한 맹자 주석서」, 『대동한문학』 63, 대동한문학회, 2020
정우봉, 「평비본 고시비평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40, 한국한문학회, 2007
_____, 「조선후기 유기의 글쓰기 및 향유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연구』 49, 한국한문학회, 2012
함영대, 「조선후기 맹자학 연구를 위한 시론」, 『동양한문학연구』 35, 동양한문학회, 2012

- _____, 「18~19세기 조선 맹자학의 주석서와 그 작가」, 『한국한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 _____, 「규장각 소장 『맹자』 판본 연구」, 『한국문화』 7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 殷六六, 『清代孟子評本研究』, 陝西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21
- 吳承學, 「四庫全書與評點之學」, 『中國文學研究』(輯刊) 第1期, 復旦大學中國古代文學研究中心, 2007

The introduction of 『Jeungbosobimaengja』 and compilation of 『Maengjabipyong』

Chung, Woo-bong

Until now, studies of 『Mencius(孟子)』 have been mainly in the field of philosophy. The focus has been on the content and meaning of Mencius from an ideological and academic history perspective. This paper aims to approach the Mencius text from a different direction than the usual perspective. 『Maengjabipyong(孟子批評)』 is noteworthy in that, according to what has been confirmed to date, it is the only study of Mencius compiled by a Joseon scholar.

『Maengjabipyong』 is noteworthy in that it is a case of accepting 『Sobimaengja(蘇批孟子)』, which is said to have been compiled by Sosun(蘇洵), and was expanded by Jo Dae-wan(趙大浣) in the Qing Dynasty. This book was compiled by Yun Myeong-seon(尹明善) by accepting the essays of Sosun and Jo Dae-wan included in 『Jeungbosobimaengja(增補蘇批孟子)』, while adding a critical essay by Yu Shin-hwan(俞莘煥), who was famous as a prose writer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In addition, to help beginners understand, gugyeolto(口訣吐) was added, punctuation marks were added, Hangul sounds were added when necessary, and tones were also indicated. 『Jeungbosobimaengja』 also has punctuation marks and tone marks, but in 『Maengjabipyong』, in addition to these, gugyeolto(口訣吐) and Hangul sounds were added, so it can be said that 『Jeungbosobimaengja』 is an example of Joseon intellectuals accepting it to suit the circumstances of Joseon.

Key Words : Maengjabipyong, Jeungbosobimaengja, Yu Shin-hwan, Yun Myeong-seon, Pyeongjeom criticism